4화

“2황자님 행차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남자에게로 집중되었다. 어느 누가 그 곳에 있었어도 그를 쳐다봤을 것이다. 표정은 다소 굳어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에서 위엄이 느껴졌다. 잘 관리받은 듯한 차분한 머릿결과 고급의 옷을 걸친 것을 보아 황족인 것이 틀림 없었다. 만일 그 날 무도회에 갔다면, 누구나 그가 주인공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수백명의 눈길과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는 무신경한 눈치다.

‘집에 가고 싶다...’

냉소적인 그의 표정 뒤에 숨은 속마음은 생각보다 하찮았다. 일단 사람

이 너무 많았다. 내향적인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기운조차도 버거웠다. 또한 옷이 너무 불편했다. 부피가 지나치게 크고 무거웠다. 신발도 발에 꼭 맞는 것이 답답했다. 여러모로 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 집에 가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할거야."

진심이 느껴졌다. 이 파티의 주인공이 된 것부터가 부담스러운데, 불편한 옷을 입고 이 의자에 흐트러짐 없이 앉아있어야 한다니.

"그래도 황자님 답지 않게 오늘은 말을 잘 들으시네요"

그의 옆에 시중으로 보이는 남자가 한마디 거들었다. 신분이 높지는 않

아보였지만 황자와 농담을 하는 것을 보니 꽤 가까운 사이인 것 같다.

"별 수 있냐고, 약속한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야. 그리고 원래 이번에는 나오려고 했어. 일단 소문은 잠재워야지"

2황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는 차남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황태자로 즉위할 것이다. 그는 여태까지는 왕관의 무게가 와닿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실감한 것 같다.

"소문이면... 황자님이 고자...라는 그거요? 하하하하 진짜 그거 신경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귀여우시다니까요"

무시할만한 하찮은 소문이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사실 진짜로

자기가 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런 소문은 있는 것보단 역시 없는게 나을 터. 적장자였던 1황자를 그의 어머니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판치는 가운데, 한 술 더 떠서 좋을게 없다는 생각이었다. (약간 경종이랑 영조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습니다)

"시끄러워. 이것도 대충 대외적 이미지만 만들고 중간에 돌아갈거야. 잘 둘러대줘"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는 정치와 권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았다. 하긴 무거운 왕관과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는 그도 아직 노는 것이 좋은 10대 소년이었다.

"흠 일단은 레이디들이랑 안면을 트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공식적

인 자리에 오시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데뷔탕트에 카르멘 공작가의 공녀님이 나오신대요."

카르멘, 그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가문이다. 소문으로는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입지를 다졌다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카르멘이라는 가문의 입지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었나...?"

카르멘 가문은 대대로 남성 중심의 가문이었다. 그렇기에 가문의 여성들은 당주가 될 수 없었다. 황국에서 특별히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집안은 더러 있었다. 그것도 고위 귀족일수록.

“암요. 공녀님이 대를 이을 유일한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하는지 따님을 얼마나 꽁꽁 숨기는데요. 봤다는 목격담 하나 없다니까요.”

황국을 이어 다스릴 황태자이지만, 남자는 정세에는 너무나 어두웠다. 그는 무도회보단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사교모임보단 검술훈련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 그도 정계에 나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다.

“오늘은, 인사만 하고 오는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명한테만 인사하고 온다.”

사실 그는 여자랑 말을 해본적이 거의 없다. 아주 어릴 때 뭣 모르고 놀던 동네 아이들조차도 황자에게는

깍듯이 대했기에, 또래 여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식으로 다가가야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젯밤 로맨스 책을 정독하고 에티튜드 강의를 받았다. 또한 초상화를 보면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열심히 외워왔다.

"황자님 어제 배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거울 보고 연습 하셨죠? 표정 자연스럽게 하는거 잊지 마세요."

알겠다고 일단 대답은 했으나 남자의 입꼬리는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손에는 땀이 계속 흘러 악수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인사는 높은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먼저 해야하는거네... 아 싫다.'

“레이디 엘리자베스 트란시 양, 2황자 알로이스 이엘로 바시움. 트란시 후작가의 레이디를 뵙습니다.”

일단 첫 인사는 무난히 넘어갓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사람을 안만난 것은 아니었으니, 또한 그도 역시 황족이었으니 인사 정도는 어렵지 않았다.

“트란시가의 엘리자베스, 제국의 작은 태양을 뵙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다. 스몰토크를 평생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의 관심분야는 첫만남에 하기엔 다소 무거운 주제였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익숙지 않아 혹 실수를 할까 두렵습니

다. 레이디께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밑밥을 깔아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게 그의 판단이었다.

"어머, 의외네요 말씀을 정말 잘하실 것 같았거든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보이십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사교모임 깨나 다니는 엘리자베스였다. 이대로 그냥 대답만 잘 하면 되는 느낌이다.

"아, 네 그랬군요."

문제는 그가, 대화에 있어서 정말 젬병이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약간 당황했다.

“황자님 이 케이크 드셔보셨나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제빵사가 만들었대요. 오늘 황자님을 위해서 특별히요!”

달콤한 디저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도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관심을 안가질 사람이 있을까?

“아, 저는 단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었다. 관심을 안가질 사람. 사실 보통의 사회적인 인간들은 단 걸 싫어하더라도 먹어봤다고 말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알로이스라는 남자의 사회경험은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하 그러시구나! 하긴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 몸매가 망가지잖아요. 아 황자님 이번에 하는 오페라 공연 보셨나요?"
오페라, 귀족이나 황족이면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설령 그 공연을 안봤더라도 무슨 내용이냐고는 물어보겠지...라고 생각했다.

"아 제가 오페라는 아예...모릅니다."

표정을 보니 여기서 내용을 말한다면 저 굳은 표정에서 안광까지 사라질 것 같다.

"아 뭐 취미는 다양하니까요! 저는 공연을 참 좋아한답니다. 아 다른 영애님들과도 시간을 나누셔야 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뺏은 게 아닌지 염려되네요. 이만 저는 인사하고 가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리를 떴다. 사실 도망친 것에 더 가까울 것 같다. 하지만 알로이스의 생각은 달랐다.

'뭐야 나 생각보다 잘하잖아?'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그였다. 어제 도대체 뭘 배운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자신감이 붙은 그는 또 다른 여성에게 다가갔다.

'아 이번에 좀 망했군.'

방금 전 대화는 그닥 만족스럽지 못했던 모양이다. 고작 두 명이랑 대화했을 뿐인데 알로이스는 벌써 피곤해졌다.

'바람이나 쐴까?'

그의 눈에 테라스가 보였다. 마침 사람도 없었고 혼자 가만히 있기 딱 좋은 위치였다.

'망때릴거야...'

그는 누구에게도 간섭받길 원하지 않았다. 그저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맞으면서 언제나처럼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뭐하는거야?'

이제 좀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어떤 여자가 시선을 끌었다. 테라스의 난간에 아찔하게 매달려 있는 여자. 작은 체구 때문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낙뎀도 있겠는데? 자유도가 워낙 높아야지."

이상한 행동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여자였다. 술을 거하게 했다던지, 어쨌든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았다.

"어...어어어...!"

여자의 몸이 점점 밖으로 기울었다. 테라스는 5층이었고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높이었다.

"미쳤습니까? 이러다 진짜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알로이스는 버둥거리는 여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끌어냈다. 끄집어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누구신대요?”

“네? 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2황자 알로이스... 아니 잠깐 지금 누구냐는 말이 나와요? 고맙다는 인사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옷차림과 머리 모양을 보아하니 귀족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어제 벼락치기로 외운 초상화에는 없는 인물이었다.

‘그럼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가보군.’

“아무튼...조심하세요! 다치면 제가 곤란하니...”

황실에서 주최한 무도회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황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긴 했다.

“제가 죽으면 곤란해요? 왜요 저 좋아하세요?”

알로이스는 정말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다.

“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나라의 황자니까 그리고 이 무도회는 제가 주최한 거라서 당신이 다치면 곤란하다 이말입니다.”

그는 정말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아, 메인 이벤트...공략캐...귀엽네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했다. 알로이

스는 그 날 첫 키스를 빼앗겼다.

이 느낌은...'

또다. 이 느낌 이 한없이 밑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 또다시 몸을 빼앗긴 것 같다.

'하필 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빙의를 막을 방법은 모르겠다만, 일단 이 녀석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한다.

"와 진짜 이건 갓겜이라니까? 진짜 몸에 들어간 것 같잖아?"

진짜 몸에 들어간 것이 맞다...

"아아, 상태창 오, 납치도 미연시답군...유혹하기라?"

마차는 계속 숲으로 들어가고 있었

다.

‘아 또 죽겠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답답한 마음과 무력감에 절망하고 있었다.

“아 1회차만에 깨는 것도 재미없는데...근데 튜토리얼부터 납치라니 좀 심했네”

제발 내 몸을 소중히 다뤄주길 바란다.

어느덧 오두막에 도착했다. 여기까진 내가 아는 전개 그대로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온댔으니...기다리고 있어”

내가 죽는 과정을 보고만 있는것도 정말 괴로웠다.

'남자를 붙잡아둬야해! 제발!'

내가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거기 오빠? 나랑 놀아주면 안돼요? 엘레노어 무서워,,,"

정말 난 이녀석을 이해할 수 없다. 방탕한 컨셉인지 귀여운 컨셉인지 하나만 하라고... 스탠스를 하나로 지켜줘야 내가 어떻게든 맞추든가 할 거 아닌가.

"어어...큼...밤이 무서운거냐?"

문제는 왜 통하냐고 저게... 그리고 말투도 뭔가 어딘지 모르게...열받는

다.

“네 오빠...저 두고 가지 마세요...”

내 입으로 남의 말을 듣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의 내용이 참...

“그럼 동이 틀 때 까지만이야 그 이상은 안돼 나도 약속한게 있어서”

일단 생명이 8시간 정도는 연장된 것 같았다.

“오빠...오빠는 mbti가 뭐야?”

어디서 온 녀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정도로 헛소리를 하는 녀석인지는 몰랐다.

“그게 뭐냐? mbti? 새로나온 주술

법 이름이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녀석인 것도 맞지만, 저렇게 대화가 되는것도 신기하다.

“음 쉿! 내가 맞혀볼게 음,,,인프피? infp 같은데? ”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려주고 말해야될거아니냐고...

“오오 그렇군! 인프피...멋지다!”

뭔지도 모르고 일단 멋지다고 하는 쟤도 정상은 아니다.

“맞아 뭔가 인프피만의 심오한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보여...혹시 우울할 때 혼자 있는 타입?”

안그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야...

“오오! 맞다! 혹시 당신은 예언자인가?”

진짜 대화가 너무 멍청해서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런 대화를 밤새 보고 있어야하다니...

>>>스킵하기<<<

‘스킵이라니...시간을 건너 뛴다는건가?’

“스킵이 되네 역시 갓겜”

내 몸에 빙의한 이 녀석은 망설임 없이 저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눈앞에 광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와 배속도 고를 수 있네”

장면은 점점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덧 정상 속도로 돌아왔다.

‘그래 이제....’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하필 몸을 뺏긴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니, 하지만 죽어도 어차피 돌아가니까 괜찮은 걸까? 그리고 몸을 뺏긴 상태에서는 고통이 느껴지는걸까?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와중에 이벤트는 시작됐다.

‘쾅쾅쾅’

“아 너를 데리러 왔나보군, 이제 나는 가보겠다. 즐거웠다. 귀족 아가씨 치고는 꽤 수더분한 매력이 있어”
막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푹’

괴한에게 습격당했다. 무방비한 상태로 칼에 찔렸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튜토리얼 #3, 설상가상]

납치도 모자라 죽게 생겼습니다.
뭐라도 주워서 탈출해야겠는데요?

‘말투가 재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건 처음 보는데, 아마 빙의가 되었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럼...나는 이 녀석이 아니면 평생 회귀를 반복해야하는건가?

“아니 게임이 자유도가 너무 높은

데? 그냥 아무거나 주워서 패면 되는건가?"

아 참, 저 상태창이 떠오른 지금은 시간이 멈춰있다. 그래서 저 괴한이 멈춰있는 자세가 꽤나 웃기다. 2번쯤 죽어보니까 여유가 생긴건지 내가 돌아버린건지 모르겠지만 좀 침착해진 것 같다.

'일단 때릴 게 필요하겠는걸'

지금 주변에 보이는 쓸만한 물건은 빗자루 정도인 것 같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

"아 일단...이 몸으로 저 성인 남자랑 싸우는 건 힘들 것 같네...그러면..."
녀석이 손에 든 건 의외로 빗자루같

이 둔기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건...게임이니까?

불이 붙은 성냥이 괴한에게로 던져졌다.

”으악 뭐야! 뜨거워 아악“

괴한은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 불에 타오르는 나무집을 뒤로하고 정말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쉬운거였다니...’

”튜토리얼이라 금방 넘어가나보네... 아까 나 대신 죽은 걔는 그냥 엑스트란가? 아쉽다 그냥 버리기엔 캐디가 잘 뽑혔던데.“

좀 화가 났다. 이 몸의 주인은 난데,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니, 무슨 기생충이 된 것만 같았다. 그리고 다시 주도권을 찾은 것은 우리 저택에 다다랐을 때, 거의 정오를 지난 시간이었다.

"오 우리 딸, 어디에 있었니 밤새 찾았단다."

아, 또 수습은 내 몫이지. 하지만 대충 얼버무리기엔 내 꼴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그을려있고, 숲에서 도망치느라 몸 곳곳에 생채기가 있었다.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몰골이다.

"다쳤니? 무슨 일이 있었어? 요즘 왜이러는거니! 집에만 있으라고 했잖아"
아...한계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혼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엘레노어 16살,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했다.

"저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요, 너무 힘들어요. 정신 차리면 사건이 벌어져 있고, 수습해놓으면 또 일이 생기고...그냥...그냥...어떡해 진짜..."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다. 눈물이라니 내 캐릭터와 정말 안 어울린다. 그만큼 내가 정신적으로 내몰린 거겠지. 그래도 이렇게 라도 말하고

나니 조금은 시원한 기분이었다.

”엘레노어, 지금 뭐라고 한거니? 알아듣게 말해야지.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게 뭐라고 했지?

아,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다. 자기 자식이 울면서 말하는데 걱정보다 자신의 심기가 먼저라니, 나는 굴복의 뜻으로 침묵과 함께 바닥을 응시했다.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지 알고는 있는거니? 너한테는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안돼. 이래서 공작가의 당주가 될 수 있겠냐고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굽

히고 들어가는게 맞다. 어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깐

“이제 앞으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말거라, 외출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노아가 같이 갈 거야”

그래 이 정도에서 끝난게 다행이다. 납치가 되었다느니 살해당할 뻔 했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괜히 울타리만 더해질 뿐이다.

“일단 목욕하고 쉬거라. 피곤하구나”

***

“야 최유현 너 내방 들어와서 게임 했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극히 현실

적인 평범한 남매가 투닥거리고 있었다.

"뭐래, 그 변태같은 미연시를 내가 왜하냐 우엑"

그렇다 그녀가 하는 게임은 남자 청소년이 하기에는 다소 많이 여성향인 게임이었다.

'버근가...플탐이 비정상적으로 긴데?'

"진짜 아니라고? 야 솔직히 말해봐. 숨겨둔 취향 아니냐?"

하긴 남자라고 여성향 게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쳤냐? 게임 할 시간에 취업이나 해."

뼈를 맞은 그녀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게임의 버그라고 생각했다.

***

길을 잃은 것 같다. 길의 분위기는 마을인데, 와 본적은 없는 곳이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걸었다.

발걸음의 끝에는 한 과자 가게가 있었다.

"무의식의 여행자여,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행자를 위한 쉼터이자, 새로

운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상담소입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나를 반겨주었다. 그런데 어쩐지 얼굴이 낯이 익었다.

"아...안녕하세요. 길을 잃은 것 같네요. 죄송한데 황궁으로 가는 길을 여쭐 수 있을까요?"

일단 황궁에서 우리 저택까지 가는 길은 알고 있다.

"아니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방문하신 적이 더러 있으시답니다? 지난번에는 이 물약을 사가셨어요."

여자는 나에게 작은 통에 담긴 보라색 물약을 꺼내 보였다.

"아아...네 그렇군요.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약은 어떤 약인가요?"

저 사람은 나를 아는 것 같고, 얼굴이 낯이 익으니 아무래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손님의 개인정보를 발설 할 수는 없거든요."

'뭐야...내가 사갔다면서...'

"제가 사갔다면서요?"

"네 하지만 알려드릴 수 없어요."

'사실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사기꾼의 냄새가 난다.

"그러지 말고, 제가 만든 쿠키와 차를 한잔 마시고 가시는 게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준 걸 먹으면 안 돼...'

"초콜릿 쿠키를 잔뜩 구웠는데 너무 많이 구워버렸거든요. 마침 밀크티도 있어서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초콜릿 쿠키에 밀크티는 참을 수 없었다.

"네 그럼...조금만 주세요."

.‘헉!’

눈을 떠보니 내 침대 위였다.

‘역시 죽은 건 꿈이었구나!’

안도하는 순간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또 납치? 아니면 그게 예지몽인가?’

그 순간, 어느새 내 방까지 들어온 막스가 젖은 수건으로 내 입을 막았다.
수면제였다.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또다시 마차 안이었다. 꿈이랑 너무 똑같다. 아니, 애초에 꿈이 맞나?
그리고 내 의심은 확신이 되어 돌아

왔다.

[튜토리얼 #2 최초의 시련]

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납치범을 설득하여 탈출하세요.

업적 달성 보상 : 외모 +10, 언변 +5
실패 시 패널티 ; 사망

아마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온 모양이다.

'이 다음엔 아마...오두막에 갇혔었지 그리고 다음은...'

[튜토리얼 #2 최초의 시련]
일단 납치범의 정보를 알아냅시다.
납치범의 프로필을 보려면 A를 누

르세요.

A : 프로필 확인하기

'역시...상태창'

이름 : 막스 그랜트 (남)
나이 : 18세
키 : 175cm
특이사항 : 여동생 1명, 평민 출신 000가문의 사용인이다.
취향 : 모성애가 강한 다정한 여자, 레몬파이를 좋아함
난이도 : 하

프로필 역시 똑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지

"뭐...뭐야! 가만히 있어! 죽...죽여도 몰라!"

‘일단 앞부분은 똑같이 가볼까’

“죄송해요... 근데 제가 어두운 걸 너무 무서워해서요. 제가 다시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시면 안돼요?”

“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약해 빠졌나보군. ”

“제가 어릴 때, 무서워하고 있으면 오라버니가 곁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만,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

‘그래 여기까진 맞는 것 같아. 문제는 마지막인데’

“뭐, 나도 여동생이 있지, 너를 보니까 생각나네, 불쌍한 녀석이야...”

‘여기서 틀렸던 것 같아. 아마 동생

이 죽었다고 했지...그럼'

"그러시군요...저희 오빠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많이 보고 싶어요. 하하 죄송해요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

"뭐 유감이군, 나도 여동생이 죽어서 그 마음을 알지...착한 녀석인데... 세상은 불공평해"

'분위기 좋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얌전히 있어, 날이 밝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네?"

또 망했나...

***

‘지루하군…’

세련된 고급 옷을 입은 젊은 남자는 아까부터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하, 오늘 데뷔탕트에 황태자비 후보가 되실 영애들이 잔뜩 오셨습니다. 혹 마음에 둔 아가씨라도 계십니까?”

“있잖아, 노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예? 어… 전하께서는… 아마 케이크를 싫어하셨나? 하하하 잘 모르겠네요.”

“여자야, 그것도 귀족 여자. 가식적인 말투, 위선적인 행동, 정말 질색

이란 말이지 특히 저런 스타일은... 딱 보니 어릴 때부터 고분고분하게 말 잘듣게 생겼네."

남자가 엘레노어를 향해 말을 얹었다.

"에이, 전하 여자 보는 눈이 너무 없으시다. 카르멘 공녀님이 오늘 데뷔탕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애님이시라고요. 제가 귀족 남자였으면 바로..."

"시끄러...바람 쐐러 갈테니까 아바마마께 적당히 둘러대줘."

남자는 연회장 밖 발코니로 향했다. (근데 보통 로판 궁전? 무도회에도 발코니 있죠...?)

그곳에는 아까 남자가 욕을 하던 여

성이 서 있었다.

‘아 적당히 있다가 나가야겠군’

“그쪽이 황자에요?”

“몰라서...묻는겁니까?”

“아 잠시만, 에드윈 데미안 플랑크 2세... 제 2 황자...19세...오케이 1회차는 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당최 알 수 없습니다만, 초면에 이러시는 게 상당히 무례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과 닿았다.

“쉿...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요.”

남자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그 여자는 황실 경위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토할 것 같다'

난데없이 첫키스를 경험한 남자는 당혹스러운 마음 반, 역겨움 30% 그리고 호기심이 남은 20%를 채웠다.

'진정하자 에드윈,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여자였어... 이건 명백히 추행이다.'

하지만 무도회 내내 그의 신경은 그 여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 실은, 그는 모태솔로였다.

무도회가 끝난 뒤에도 그의 머릿속

엔 키스 사건이 계속 맴돌았다.

‘내가 여자랑 키스를,,,그것도 귀족 여자랑...’

남자에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저녁이었다.

***

‘날이 밝으면 데리러 온다고 한 건 거짓말이고, 이대로 끝나면 괴한이 날 죽이는 엔딩인데?’

어쩌면, 어떻게 해도 난 여기서 죽는건가?

“잠깐, 데리러 온다는 건 누가 그런 거죠? 당신 누군가가 시켜서 이 일을 하는 것이군요?”

“나도 잘 몰라, 누가 나한테 돈을 줄테니까 너를 납치하라고 했다. 안전은 보장할 테니까 안심하라더군”

“그 돈, 얼만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을 붙잡아 둬야겠어’

“아니야, 이런 짓은 이제 마지막이야. 이러고 살아봤자 뭔 의미가 있나 싶고... 돈도 이정도면 충분해”

‘아...점점 배드엔딩으로 가고 있어...’

“좋아해요”

“뭐? 귀족 아가씨가 뭘 좋아하든 난 관심 없어”

“아니요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냅다 고백을 갈겨버렸다. 이판 사판이다. 이미 망친 이미지 더 망친다고 크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좋...좋다고...? 내...내가? 헛소리하지마! 나...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그리고...너같은 아가씨랑은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라면 그만 두는게 좋을거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저 사람은 내 운명이구나. 저 상처받은 맹수같은 눈빛과 거친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머릿결과 흰 피부가,

여자보다 긴 속눈썹이, 툭 치면 울 거같은 얼굴로 내뱉는 비속어들이,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왔어요"

"정신 차려! 나는 너를 납치했다니까?"

"그런건 저에게 상관 없어요. 사실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제가...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아, 붙잡아두는 정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취해버렸다. 이래놓고 죽으면 진짜...

"낯...낯부끄러운 소리 그만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책이나 보고 환상이 있나보군? 귀족 아가씨는 모르겠지만 밑바닥 인생이 얼마나

비참안지나 알아?"

약간 겁을 먹은 것 같다. 하긴 내가 생각해도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다 내가 납치한 여자애가 나한테 고백을 갈긴다는게...

"일...일단...내가 좋다는게 진짜라면...사...사랑의 도피...라도 각오해야하는데 괜찮은거냐? 공작가에서 평민 남자를 좋아하면 아무래도...우리집은 황국 변두리 시골 마을이라 들킬 위험이 적긴 한데...아...아무튼 비밀 연애로 시작해서 조용히 잘해보면 승산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된다고?'

"네!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저에게 상관 없어요. 오늘 밤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당신에게 빠졌어요.”

“내 이름은, 막스야.”

“네 막스, 당신과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저는 엘레노어, 카르멘가의 공녀입니다.”

“너는 유명해. 우리같은 평민들도 알정도로... 근데 소문과는 뭔가 다르군?”

“소문...이요?”

“사실...음...이런 말을 해도 되나? 카르멘의 공녀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아. 워낙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군”

‘이제 거기에 황자 키스녀가 한스푼 추가 되겠지’

“아아...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남자 분들이랑 친하질 않아서 그런 이야기가 도는 모양이네요. 보시다시피 사실은 아닙니다”

해명아닌 해명을 했다. 가십거리에는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나가서 또 해명을 해야 할 생각이 머리가 아파왔다.

“근데 막스님...막스님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신건가요?”

분명 저 사람은 어떤 가문의 사용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우리 저택에 들어와있었을 것이다.

“아 뭐, 별 건 아니고 그냥 허드렛

일이지 뭐, 보다시피 내가 덩치가 있잖냐. 그래서 몸쓰는 일이나 위험한 일 같은거 대신 해주고 돈을 받아. 출신이 천해서 아무 일이든 닥치는대로 했는데, 이젠 그만 두려고 더 이상 남은 가족도 없고...너한텐 미안하게 됐다."

도와줄 가족 하나 없는 평민 출신이 가난한 남자라...써먹고 버리기 딱 좋았다. 사라지더라도 찾을 사람 없고 보수만 두둑히 준다면 입막음도 쉬우니...근데 어디서 보낸 녀석일까?

"그럼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외롭겠어요."

사용인이면 적어도 저택에는 살겠지...

“아 혼자 살지는 않아. 어떤 귀족 양반이 나를 거둬줬거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어.”

쉽게 알려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물어볼까?

“우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혹시 그 분의 존함을 여쭐 수 있을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 이만 나는 가봐야겠다. 슬슬 동이 트는 모양이야.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데리러 올거야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라고. 그...그리고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그가 떠난 후 나는 잠이 들었다.

1화

“엘레노어 양이 벌써 16살이 되어 이 자리에서 만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한 소녀라 들어서 눈여겨 보고 있었답니다.”

[푸아틴 후작 부인 42세,, 아들 2명 있음 특별한 영향력은 없지만 심성이 꼬여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함]

어제 밤까지 닳도록 외운 주요 사교계 인사들의 특징을 되새기며 내 인생의 첫번째 관문을 시작하고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후작 부인. 저희 어머니께서 부인 이야기를 어찌나 하시던지요. 지적이고 우아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은 몰랐습니다.”

적당히 칭찬해주면서 빠질 생각이다. 긴 대화는 좋지 않다. 말실수를 할 위험이 있으니,

"어머, 농담도 참, 꼭 우리 아들 녀석이랑 짝지어주고 싶네. 즐겁게 놀다가 가세요. 오늘은 엘레노어 양이 주인공이니."

순조롭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이었다. 슬슬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마침 타이밍이 왔다. 아 입꼬리랑 광대가 너무 아프다.

"아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너무 피곤했던 나는 잠시 바람을 쐬고 싶었다. 단지 그것 뿐이었다.

“우와, 그래픽 실화? 역시 대기업이다."

“엘레노어 양?”

***
이건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무한한 어둠 속에서 겨우 발을 디딘 나는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향해 걸었다.

나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 너머 보이는 풍경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저건, 방금 전까지 내가 있던 곳, 나의 데뷔탕트가 열리는 연회장이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지금 저기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정확히는 내 육신은 맞지만 이 몸을 조종하는 뇌의 주인이 엘레노어 카르멘이 아니라는 뜻이다.

겨우 상황을 파악한 내 눈앞에 어떤 문장이 보였다

[튜토리얼 #1 화려한 데뷔]

당신은 카르멘가의 공녀, 엘레노어 클로에 카르멘, 드디어 16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교계에 데뷔하는 날입니다.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세요!

업적 보상 : 외모 +10 언변 +10
실패시 패널티 : 사망

(A 버튼을 눌러서 인물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Q 버튼을 누르면 기기의 감도를 조절하여 오감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실감나는 플레이를 즐겨보세요.)

'이게...뭐야?'

몸을 뺏긴 것 만으로도 당황스러운 와중에 저 문장들이 가득한 화면의 존재감은 너무나 컸다.

한참을 벙쪄있던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 몸을 조종하는 녀석의 시야를 확인했다. 주도권은 없어도 시야는 공유가 가능한 모양이다.

시야 너머에는 곧 황태자로 즉위 할 2황자가 서있었다.

‘혹시… 공략할 남자에 황자님도 포함인 건 아니겠지?’

생각할 틈도 없이 내 몸은 황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입술과 저 남자의 입술이 닿았다.

‘망했다.’

***

내가 몸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데뷔탕트가 끝난 후, 내 저택에서였다.

그건 명백히 추행이고 범죄였다. 심지어 귀족 소녀가 황태자가 될 황자에게, 가십거리가 되기 딱 좋은 일이다.

‘하 어떡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까부터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키스 사건 이후 나는 바로 연회장에서 끌려나와 바로 집으로 연행됐다, 그리고 그대로... 방에 갇혀버렸다. 하,,, 차라리 혼났으면 좋겠다.

***

“엘레노어, 이 아비가 널 잘못 가르친 것 같구나.”

“엘레노어. 우리 딸...혹시 무슨 일이 있는거니?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렴, 그런 짓을 안해도...괜찮단다. 엄마는 우리 딸 믿어”

***

일단 난 외출 금지 상태다.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집의 사용인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죽는 것 보단 나으니까..’

확실히 냅다 키스를 갈기는 건 강렬한 첫인상이긴 했다. 근데 이제 상대가 황자인...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해명하냐고...’

갑자기 나타난 화면과 문장이라던가 몸을 누군가가 약탈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카르멘의 공녀가 망나니라는 소문에 미치광이라는 소문만 덧붙여질 뿐이었다.

'이제 시집은 다 갔어...나는 평생 독신으로 늙어갈 거야...그리고 이제 황국에서 쫓겨나겠지...'

절망에 빠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었다.

'뭐 어쩌겠어 이미 망했는데 그냥 막 나가버려?'

나는 합리화와 절망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반복했다.

***
결국 별 소득 없이 밤이 되었다. 아무래도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걸로는 답을 찾기 어려웠다.

'자고 일어나면 모두 없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안가 나는 마차 안에서 잠을 깼다.

나는 납치되는 중이다. 아무래도 나한테 하루 안에 너무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사람이 살면서 납치를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그것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날에 실수를 한 다음 납치를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쓸데없는 잡념에 잠겨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나는 커튼을 걷고 밖을 보았다.

마차는 점점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저기요! 저기요! 내려주세요!”

나는 급히 도움을 요청했다.

"…"

'그래 내려달라해서 내려주면 납치겠냐고…'

한밤의 어두운 숲속에는 말발굽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번이랑 같은 화면이 보였다.

[튜토리얼 #2 최초의 시련]

지금 당신은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납치범을 설득하여 탈출하세요.

업적 달성 보상 : 외모 +10, 언변 +5
실패 시 패널티 ; 사망

'미치겠네…뭐만 하면 죽는대…'

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번에는 몸을 뺏긴 상태가 아니었다.

얼마 뒤 마차가 멈추었고, 어느 오두막에 도착했다. 마차를 끌던 남자는 내 손과 발을 묶고 작은 오두막에 가두었다. 내 눈앞에 또 화상이 보였다.

[튜토리얼 #2 최초의 시련]

일단 납치범의 정보를 알아냅시다. 납치범의 프로필을 보려면 A를 누르세요.

A : 프로필 확인하기

도대체 저게 뭐길래 내가 죽는다느니 뭐니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두 번씩이나 나타난 걸 본 이상 착각이

라고 할 수 없었다.

나는 화상에 손을 뻗어 'A' 라는 글자 위에 가져다 댔다.

'엄마야...으악'

눈앞에 또 새로운 창이 나타났다.

이름 : 막스 그랜트 (남)
나이 : 18세
키 : 175cm
특이사항 : 여동생 1명, 평민 출신 000가문의 사용인이다.
취향 : 모성애가 강한 다정한 여자, 레몬파이를 좋아함
난이도 : 하

'이게...다야?'

저런 걸 정보라고 주다니... 그리고

저놈이 레몬파이를 좋아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냔 말이다. 그리고 저 000이 몹시 신경쓰였다.

그리고 저 000이 몹시 신경쓰였다.

'여긴 왜 지워져있지?'

나는 저 가려진 문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오류 : 레벨이 낮아 열람불가!'

제길, 저거 좀 보겠다고 레벨 업도 필요하다니.

근데 이상한 일이다. 나는 분명히 방에 갇혀 있었고,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감시가 삼엄했을터인데...

심지어 납치범은 다른 가문의 사용

인이다.

찝찝한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일단은 살아야하기에, 상태창을 다시 살폈다.

[튜토리얼 #2 최초의 시련]

미소녀 공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력적인 법. 방금 얻은 정보들을 통해 납치범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만드세요

'그냥 죽으라는 거네'

안 하면 죽으니 일단 되는대로 질러보기로 했다.

"저기요..."

"뭐...뭐야! 가만히 있어! 죽...죽여

도 몰라!”

반응이 지나치게 거칠고 감정적이다. 저런 타입들은 보통...

“죄송해요... 근데 제가 어두운 걸 너무 무서워해서요. 제가 다시 잠들 때까지만 옆에 있어주시면 안돼요?”

저 남자는 여동생이 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동생이나 가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사주받은 것이다.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작전이다.

“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약해빠졌나보군. ”

“제가 어릴 때, 무서워하고 있으면 오라버니가 곁을 지켜주셨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만,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

거짓말이다. 나는 오빠가 있었던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술술 잘하다니 역시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게 사실인가보다.

“뭐, 나도 여동생이 있지, 너를 보니까 생각나네, 불쌍한 녀석이야...”

“이렇게 멋진 오빠가 있는데요? 여동생분도 행복할거에요.”

“뭘 안다고 지껄여! 그녀석은 죽었어.”

아, 틀렸나보다...이게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얌전히 있어, 날이 밝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

으니”

막스는 오두막을 떠났다.

‘잠깐, 데리러 온다고? 분명... 실패시 사망이라고...’

그 때 누군가 굳게 잠긴 문을 열었다.

[튜토리얼 #2 최초의 시련]

미션 실패! 패널티 부과됩니다.

실패시 패널티 : 사망

‘좋은 인생이었다...’

오두막에 들어온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